

# GIST 배연우 학부생, 《탐정 명아루》 출간 비룡소 제1회 '셜록 홈즈상' 대상 수상

-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배연우 학부생(23학번), 수상작 바탕으로 8월 첫 단행본 출간... 초등학생 탐정 명아루가 불가사의한 사건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本格 미스터리
- 2023년에는 제7회 문학동네 엘릭시르 미스터리 대상 단편 부문 수상도... "좋아하는 글을 꾸준히 쓰며 한국本格 미스터리 장르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어"



▲ 제1회 비룡소 '셜록 홈즈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배연우 학부생(23학번)이 수상작을 바탕으로 출간된 어린이 추리소설 《탐정 명아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배연우 학부생(23학번)이 비룡소 제1회 셜록 홈즈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을 바탕으로, 지난 8월 어린이를 위한本格 미스터리\* 소설 《탐정 명아루》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셜록 홈즈상은 아동·청소년 전문 출판사 비룡소가 국내 어린이 미스터리 장르 문학 발굴을 위해 2024년 처음 개최한 공모전이다.

\*本格 미스터리: 고전 추리소설을 계승하여 수수께끼 풀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추리소설의 한 장르. 사건의 단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진상을 밝혀가는 과정을 중시한다.

《탐정 명아루》는 초등학생 명아루가 탐정으로 활약하며 사건을 해결하는本格 미스터리 소설이다. 학교 뒷산 폐가 괴담, 저주 인형 도난, 썩어버린 학교 연못 등 얼핏 불가사의해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탐정 명아루의 논리적 추리를 통해 서서히 밝혀진다.

심사위원 허교범(아동청소년 문학가)과 윤영천(하우미스터리 운영자)은 《명아루 탐정일지》에 대해 “괴담을 바탕으로 공포와 추리를 결합한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며 “어린이 독자의 흥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추리소설 전통에 대한 작가의 깊은 이해와 독자의 연령을 고려한 공포 수위 조절, 주인공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배연우 작가는 지난 2023년 제7회 엘릭시르 미스터리 대상\* 단편 부문에서 《탐정, 수정》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이후 엘릭시르의 미스터리 전문 잡지 《미스테리아》에 연작과 칼럼을 연재했다. 《탐정 명아루》는 그의 첫 단행본이다.

\* **엘릭시르 미스터리 대상**: 문학동네의 장르문학 브랜드 엘릭시르가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기성·신인 작가를 불문하고 다른 지면에 발표된 적 없는 완성도 높은 미스터리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本格 추리, 일상 미스터리, 서스펜스, 스릴러, 하드보일드, 첩보 등 다양한 하위 장르를 포괄하며, 장편과 단편, 비평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작품 구상 배경에 대해 배 작가는 “평소 괴담을 좋아했는데, 특히 학교 근처의 폐가나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괴물 소문 같은 설정이 초등학생 독자들에게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추리소설에서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사건의 근원에 논리적 진상이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에서는 자극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줄이고,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는 서사에 집중했다”며, “공학도로서의 경험이 주인공의 과학적 사고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배 작가는 일본 신本格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아야쓰지 유키토를 좋아하는 작가로 꼽으며, “그의 ‘관 시리즈’에서本格 미스터리와 재미와, 독자에게도 충분한 단서를 제공해 함께 추리할 수 있게 하는 ‘공정한 수수께끼 풀이’를 배웠다”며, “앞으로도 좋아하는 글을 꾸준히 쓰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한국本格 미스터리 장르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신本格 미스터리**: 일본에서 등장한本格 미스터리와 현대적 변형으로, 전통적 추리 요소에 심리적·사회적 요소를 결합하여 사건 해결 과정과 수수께끼 풀이를 강조하는 추리소설 장르.